



김상훈 '위기의 KIA' 구했다

5회 2타점 역전 결승타 치며 팀 3연패 탈출 견인

이종환 프로데뷔 첫 2루타...양현종 7K 2실점 V투

주장 김상훈이 위기의 팀을 구했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5차전에서 김상훈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3-2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의 연승행진은 6연승에서 멈춰섰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마운드 맞대결을 벌였던 양현종과 크루세타가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첫 대결에서는 크루세타가 5이닝 동안 7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챙기며 먼저 웃었다. 양현종은 시즌 첫 등판이자 홈 개막전이었던 이날 경기에서 4회 6실점으로 무너지며 패전 투수의 멍에를 썼다.

두 번째 대결에서도 크루세타가 먼저 기선을 잡았다. 크루세타는 3회까지 삼자범퇴로 KIA 타자들을 요리하며 4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양현종은 2회 최형우·강봉규·박한이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먼저

2점을 내줬다.

4회초 경기 흐름을 바꾼 상대의 실책이 나왔다. 투아웃 이후 나지완이 볼넷으로 걸려 나간 뒤 좌익수 강봉규가 최희섭의 타구를 놓치는 실책을 기록했다. 그 사이 나지완이 홈을 파고들면서 점수는 1-2이 됐다.

5회초 신에 선수들의 방망이가 철벽 방어에 크루세타를 뒤흔들었다.

선두타자로 나온 안치홍의 우전안타에 이어 좌익수로 선발출전한 이종환의 2루타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프로무대 데뷔 안타를 2루타로 장식한 이종환의 연속안타로 무사 2·3루. 주장 김상훈이 크루세타의 낮은 볼을 걷어올려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하며 3-2로 승부를 뒤집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양현종은 박석민에게 볼넷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아웃카운트 세 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5회를 막았다. 6회말 양현종은 첫 타자 최형우를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강봉규·박한이에게 연속해서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위기의 상황에서 광정철이 승부사로 마운드에 등판했다. 현재운에게 투수 앞 땅볼을 유도하며 병살타로 1사 1·2루의 위기를 넘긴 광정철은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3.2이닝 무실점의 완벽 투구로 시즌 2세이브를

기록했다. 탈삼진도 6개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승부로 삼성 타선을 봉쇄하며 팀의 수호신이 됐다.

양현종은 5회 3분의 1이닝동안 5개의 볼넷을 납발하며 불안한 제구를 보였지만 5피안타 7탈삼진 2실점의 투구로 시즌 2승째를 거두고 크루세타와의 두 번째 대결에서 승자가 됐다.

대구 첫경기에서 끝내기 실책으로 무릎 꿇으면 휘청였던 KIA는 타격 선봉에 선 주장의 힘을 앞세워 연패를 끊고 문학, 대구로 이어졌던 험난했던 원정 6연전에서 3승3패를 수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침묵

3경기 연속 무안타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

추신수는 11일(한국시각) 디트로이트 코디카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디트로

이트 타이거스와 원정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지만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하지만 볼넷과 몸 맞는 볼을 하나씩 골라내 득점은 하나 올렸다.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25에서 0.111(18타수 2안타)까지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1회말 매글리오 오도네스에게 2점 홈런을 맞는 등 초반에 4점을 내주며 2-4로 패했다.

/연합뉴스

탱크의 '추적'

마스터스 3R 공동 3위

우즈와 나홀 연속 동반

‘탱크’ 최경주(40)가 ‘꿈의 무대’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나홀 내내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치며 우승컵을 다룬다.

최경주는 11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436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역시 2타를 줄인 우즈와 나란히 공동3위(8언더파 208타)에 오른 최경주는 4라운드에서도 우즈와 함께 경기를 치른다.

최경주와 우즈는 대회조직위원회 조 편성에 따라 1, 2라운드를 함께 치렀고 2라운드 성적에 따라 3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데 이어 3라운드 스코어도 똑같이 나홀 동반 동반자가 됐다. 단독 선두(12언더파 204타)로 나선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4타차, 2위 필 미켈슨(미국)에 3타 뒤진 최경주는 사흘 내내 상위권을 지켜 우승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4년 3위를 차지해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을 올린 최경주는 평소 “마스터스가 메이저대회 첫 우승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 자신감을 보였다. 전반에 버디와 보기를 한 개씩 맞바꿔 제

자리 걸음을 걸었던 최경주는 10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어 리더보드 상위권에서 내려앉는 듯 했지만 후반 버디 3개를 뽑아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까다로운 홀이 줄줄이 이어져 저절로 ‘아멘’이라는 탄식이 나온다는 ‘아멘 코너’(11번~13번홀)에 접어들어 최경주는 12,13번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 기세를 올렸다.

2005년 이후 이 대회 통산 다섯 번째 우승과 메이저 대회 15승에 도전하는 우즈도 역전 우승의 꿈을 부풀리기 충분하다 4번부터 7번 홀까지 4개 홀에서 보기 3개를 쏟아내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후반으로 넘어와 13번부터 15번 홀까지 3연속 버디로 만회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최경주는 “또 우즈와 같은 조가 돼 기쁘다”라며 “우즈의 복귀 대회이기 때문에 팬들이 우즈를 응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나에게도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도 “최경주는 훌륭한 선수다. 최근 몇 년간 함께 친 적이 있었다. 영이도 많이 늘어 대화가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1타도 줄이지 못한 양용은(38)은 공동9위(5언더파 211타)로 내려앉았다. 1타를 까먹은 앤서니 김(25·나이지리아)도 양용은과 함께 공동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양용은과 앤서니 김은 동반 플레이에 나선다.

/연합뉴스



최경주가 11일(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마스터스골프대회 3라운드 10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시킨 후 홀 아웃하고 있다.

김도훈 프로무대 첫 우승

KPGA 토마토저축은행오픈

2006 아시아게임 골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도훈(21)이 프로 무대 첫 우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김도훈은 11일 제주 세인트포 골프장(파72·7466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 투어 토마토저축은행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3타를 줄여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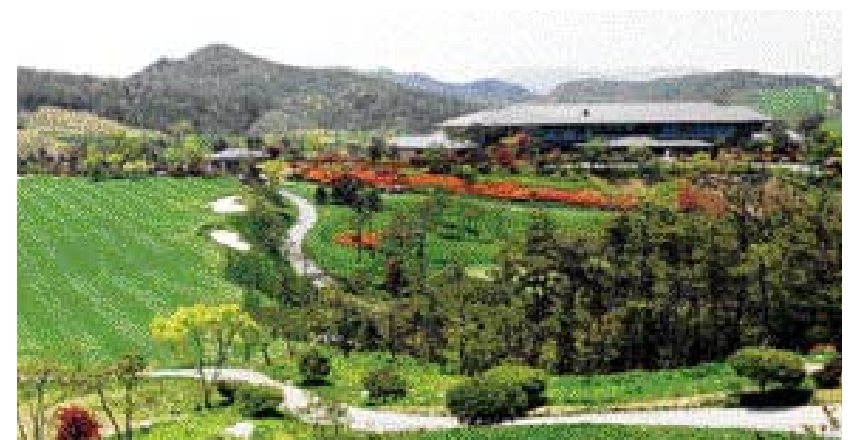
김형성(30)과 김대현(22·하이트)이 견제했지만 전반부터 치고 나간 김도훈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김형성은 5언더파 283타로 2위, 김대현은 4언더파 284타로 3위에 올랐다.



부산 출신 김도훈은 2006년 아시아게임에서 김경태(24), 강성훈(23·이상 신한금융), 동명인인 김도훈(21·넥스)과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고 이듬해 프로로 전향했다.

2부 투어부터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김도훈은 지난해 SK텔레콤오픈에서 준우승, 에이스저축은행 몽베르오픈에서 공동 9위에 오른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 들어 꾸준히 상위권을 지킨 김도훈은 마지막 날에도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함평다이너스티CC

“비엔날레 함께해요”

광주비엔날레 마케팅업체 선정·입장권 가져오면 그린피 할인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산디 골프장인 함평다이너스티CC(대표 이사 차성만)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 2010광주비엔날레 관람객 유치에 위한 공동마케팅 업체로 선정됐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관람객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기업체와 연계하여 상호 할인혜택, 홍보지원 등의 공동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안을 접수한 결과 함평다이너스티CC 등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함평다이너스티CC는 오는 5월부터 전국 영업망을 통한 비엔날레 홍보 뿐만 아니라 프런트에서는 입장권도

판매한다. 특히 판매한 입장권을 소지하고 내장한 고객에게는 그린피 1만원 할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판매한 입장권은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단체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8천원(정상요금 1만2천원)에 판매키로 했다.

2010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3일부터 11월7일까지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광주시립미술관·광주시립민속 박물관 등에서 열린다. ‘만인보’(萬人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 100여명이 참가한다. 입장권 구입문의는 함평다이너스티CC 061-320-7716.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지영준 대구국제마라톤 준우승

소속팀과 갈등을 빚었던 ‘포스트 이봉주’의 선두주자 지영준(30·코오롱)이 2010 대구국제마라톤에서 남자부 준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뽐냈다.

지난해 광저우 지영준은 11일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해 대구 시내를 일주한 뒤 다시 돌아오는 42.195km 풀코스 레이스에서 2시간9분31초를 찍고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작년 개인 최고기록인 2시간8분30초로 우승했던 지영준은 2연패에는 실패했지만 올

해 국내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을 내 광저우 아시아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입상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작년 두바이마라톤에서 2위에 올랐던 에디오피아 에데가 2시간8분45초의 기록으로 우승, 상금 8만달러를 받았다. 에티오피아의 위계유 기르마 테페라는 2시간10분09초로 3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예시 에세이아스 테셀마(에티오피아)가 2시간29분17초를 찍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